

# “효과적인 봉사로 소외이웃에 도움 주겠다”

●백현옥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

## 첫 여성 총재...특유의 감수성 발휘 열정적으로 활동 회원 중심 의료봉사단 꾸려 연말 필리핀서 봉사 예정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지만 ‘효과적인 봉사’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제로타리 3710지구 첫 여성 총재로서 여성 특유의 감수성 등을 발휘해 소외된 이웃에게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전하겠습니다.”

이달 초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백현옥(64·사진)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4일 “입기 동안 좀 더 잘 할 걸, 좀 더 도전할 걸, 좀 더 헌신할 걸, 좀 더 헌신할 걸, 이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봉사단체 총재로서 열정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로타리가 봉사에 의미를 두고 있는 만큼 국내외 가리지 않고 여건이 되는 한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백 총재는 “함평에서 홀로 거주하는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최근 집중 호우로 집에 비가 많이 새고 생활하기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수리 봉사 등 긴급 봉사를 한 바 있는데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말 필리핀에서 국제 의료 봉사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백 총재는 “국제 의료봉사는 역대 총재들도 해오던 사업인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전남대병원 의사들과 로타리 회원들이 동행



했다면 이번에는 로타리 회원 중 의사들이 중심이 돼 봉사단을 꾸릴 예정”이라며 “물론 간호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할 회원들이 동행해서 코

로나 백신 접종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돕고 주거 환경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로타리 2024-25 테마인 ‘기적을 이루는 로타리’가 3710지구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회원들이 함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클럽 출석, 기부, 봉사 참여 이 모든 것이 봉사다. 로타리안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단체의 진정성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기다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현옥 총재는 광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원광대학교 교육학·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상담 석사과목포대 일반대학원 가족 아동 상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송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광주 상무 RC 로타랙트 지도교수를 시작으로 광주 초원로타리클럽 창립 및 초대 회장을 비롯해 명인 등 클럽 4개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주성희기자

광주매일 TV kjdaily.com (영상뉴스)



## 이상길 광주소방학교 소방경 ‘행안부장관상’

광주소방학교는 24일 “이상길 지휘역량팀장(소방경)이 전남 열린 소방교육 혁신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인 행안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소방교육 훈련기관 소속 교수와 각 지역 소방본부 대표들이 참가해 교육 훈련 기법 연구와 개발을 통해 미래 선진 소방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소방경은 광주소방학교에서 가상현실을 통해 현장 지휘관의 상황 판단 및 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현장 지휘관 양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지휘관 양성 교육 평가 지표 개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 개발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오는 11월 열리는 국가인재개발원의 제42회 공공 HRD콘테스트에 참가할 계획이다. /박성강기자



## 전남도 ‘보건의료 정책 워크숍’ 성료

전남도는 24일 시·군 보건소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선 전남 보건의료 현안인 의료자원 부족과 이에 따른 지역 내 필수 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향후 보건의료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주영 남서울대 교수의 ‘보건기관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주제 강연도 진행됐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보건기관이 1차 의료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 방문 보건, 커뮤니티 케어까지 확대하는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전공의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등 공공보건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건기관의 비대면 진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 협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인공지능 활용 영상 판독 지원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명칭할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보건기관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사회의 보건사업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 행사

▲제1회 대전면 한재골 수목정원 물축제(대전면 물축제추진위원장 방남래)=8월3-4일(토-일), 개최시:3일(토) 오후 2시 대전면 한재골 수목정원 일원, 담양군 대전면 대치길2-5. 주최:물축제추진위원회, 주관:대전면 주민자치회, 후원:대전면 각기관 사회단체.

## 인사

국세청 ◇초임 세무서장 ▲목포세무서장 이진재 ▲여수세무서장 이성일

## 본사손님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서용규 ▲제1부의장 ▲채은지 ▲제2부의장 ▲정다운 ▲운영위원장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박필순 ▲산업시설위원장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명진 ▲교육문화위원장 ▲김정민 ▲홍보소통담당관



##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어르신 ‘문화의식 UP 프로젝트’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문화의식 향상 등을 위해 ‘문화의식 UP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의식 UP 프로젝트’는 문화 예술 자원이 풍부한 동구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으로 이동들을 대상으로 10회 시행했다.

올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 6차례를 계획하고 있다.

이중 첫 호로 어르신 20여명이 동구 비움박물관을 찾아 과거에 사용했던 민속품 등을 보고 도슨트 해설을 들으며 산업사회 이전 한국의 가난했지만 정겨웠던 시절을 회상하는 문화 체험 시간을 가졌다.

24일에는 또 다른 어르신 20여명이 비움박물관을 찾아 문화 향유를 즐긴다. 3-6회차는 하반기에 실시된다.

동구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전통문화와 아시아문화 체험을 통해 문화예술 의식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오는 8월 광복의 달을 맞아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이자 문화예술공간의 역사적 가치가 큰 광주극장 활성화 위한 ‘우수자원봉사자 문화예술체험’ 사업을 진행한다. 조상권 이사장은 “동구의 다양한 문화 예술 자원의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권 센터장은 “문화예술 활동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동구 지역 문화 공간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문화의식 UP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더불어 인문·문화 도시 동구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장은정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 이차전지 사업장 안전 점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3일 포스코 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을 방문, 이차전지 사업장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포스코 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은 연간 9만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단일 규모 세계 최대 양극재 생산 공장이다. 양극재 9만톤은 60kWh의 배터리를 탑재한 고급 전기차 약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날 도의원들은 공장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품질분석실과 운전실을 찾아 위험 요인 및 안전 관리 업무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은 “경기 화성 화재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 관리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 전남연구원-光기술원 ‘융복합 연구 확대’ 협약

전남연구원은 24일 한국광기술원 대회의실에서 한국광기술원과 광융합산업 효율성 향상 및 실효성 있는 지역 정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김영선 전남연구원장과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공동연구 수행 및 협력 분야 발굴 ▲보고서·간행물 등 자료 공유 ▲연구 협력을 위한 인력 교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은 “한국광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광융합 기술 전문연구소로서 전남 연구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미래 기술 기반 전남의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 류준오 무안군체육회장, 목포대 여자탁구팀 격려

무안군체육회는 24일 “전날 류준오(사진 오른쪽 세 번째) 무안군체육회장이 목포대학교를 찾아 올해 초 창단한 여자탁구팀 선수들을 격려하고 훈련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류준오 회장은 “선수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노력이 무안군뿐만 아니라 전남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대구로 떠나는 전지훈련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준 무안군탁구협회 회장은 “체육회에서 현장을 찾아 세심하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수들이 더욱 열심히 훈련해 좋은 성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무안=김성호기자

## 담양군, 민원 최일선 담당 공무원 소통 간담회

담양군은 “최근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박효정 민원과장을 비롯한 이미정 민원팀장, 차광복 민원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을 만나 업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담당자들을 격려했으며, 민원 업무 관련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병노 군수는 “증가하는 민원과 고된 업무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청과 섬김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담양군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블 캠) 배부, 심리상담, 특이 민원 비상 대응 모의훈련,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총괄 전담부서 지정 등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뿐 아니라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양=정승균기자

## 민족통일장흥군협, 탈북민에 사랑의 쌀 기탁

장흥경찰서는 “최근 민족통일장흥군협의회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사랑의 쌀 100kg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탁된 쌀은 장흥경찰 탈북민 신변보호관이 각 가정에 방문, 전달했다.

시순문 민족통일장흥군협의회장은 “관내 탈북민들이 군민과 함께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행희 장흥경찰서장은 “안정적인 탈북민 정착 생활을 위해 나눔을 통한 희망을 전달해



고맙다”고 화답했다. /장흥=노형록기자